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 사용이 중학생들의 영어읽기전략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이경량 (세종대학교)
김수연 (연세대학교)
임옥영 (Marian University)

Received: 17 August 2023
Revised: 29 September 2023
Accepted: 6 October 2023

Lee, Kyoung Rang, Kim, Soo-Yoon, & Lim, Okyoung Jenny. (2023). The effects of video-bas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aterials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ies and comprehension. *Modern English Education*, 24, 186-207.

Keywords

video-bas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aterials, reading strategies, reading comprehension, differences by gender and learning styles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 읽기전략, 독해력, 성별과 학습스타일별 차이

Abstract

In today's digital landscape, video-based instructions have become a powerful tool for young generations to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Especially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s), video-based instructions emerge as a potent approach in class to enrich language acquisition and foster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keep up with this trend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 recently created video-based reading strategy materials on ELLs' reading comprehension as well as how reading strategy was differently used in terms of gender and learning styles. In the short video, five animals demonstrated how to use each relevant reading strategy while the texts were read. The interventions were provided to 18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for seven weeks. Data on reading comprehension achievements and the frequency of reading strategy us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gender and learning styles. The results revealed that males and females demonstrated different application patterns of reading strategy although all students showed improvement in global comprehension questions. Overall, the results found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female and global learners in the application of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comprehension.

Kyoung Rang Lee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jong University
kranglee@sejong.ac.kr

Soo-Yoon Kim (Co-author)
Professor,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ksy1211@yuhs.ac

Okyoung Jenny Lim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ENL
Marian University
olim@marian.edu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aculty research fund of Sejong University 202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을 용이하게 도왔으며 영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Muslem et al., 2019).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정보를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어린 학습자들일수록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영상 교재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여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in et al., 2007). 여러 과목 중 특히 영어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처럼(Choi & Kim, 2003; H.-J. Kim & Kim, 2016),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동영상 교재들을 활용할 경우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 본인의 진도와 수준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Muslem et al., 2019).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강조되면서 동영상 교재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어학습전략의 중요성도 재조명 받고 있다(Kang, 2016; Maeng et al., 2021;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1a, 2021b). 영어학습전략은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인지 및 상위인지적 능력(cognitive and metacognitive skills)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Oxford, 1990, 2018).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사용하면 자기주도성 및 자율성 등이 향상되므로(Bandura, 1992; Candy, 1991; Knowles, 1975), 본인에게 맞는 영어학습전략을 이용하고 평가해보는 활동이 필수적이다(Juyeon Lee, 2016). 즉,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맞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K. R. Lee et al., 2011; K. R. Lee & Lim, 2021; J.-Y. Park & Kim, 2019).

이 때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환경이 영어학습전략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Woodrow, 2005), 효율적인 영어학습전략 이용을 위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수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Maeng et al., 202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3).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이 주가 되는 EFL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많이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Bae & Kim, 2018a; S. Kim & Kim, 2015).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어학습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동영상 기반 영어읽기전략 교재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Bae & Kim, 2018b),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동영상 교재로 개발하고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내외 기존의 영어학습전략 관련 연구에서는 성별 비교(Green & Oxford, 1995; Lan & Oxford, 2003; K. R. Lee & Oxford, 2008)와 학습스타일별 비교(Cohen, 2003; K. R. Lee, 2008; Oxford, 2003)가 주를 이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거나(Green & Oxford, 1995; Lan & Oxford, 2003),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K. R. Lee & Oxford, 2008) 상반된 결과들이 많지만, 동영상 교재를 활용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성별 비교는 많지 않았다. 또한 영어학습전략의 선택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어학습스타일을 함께 비교한 경우가 많다(Cohen, 2003; Oxford, 2003). 특히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은 영어학습스타일 중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주제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통합적학습자인지, 단어와 문장 등 세부적인 정보와 내용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분석적학습자인지의 구분(사고전개방식선호도)이 전략 이용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므로(K. R. Lee, 2008), 이에 따른 비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영어학습스타일 등의 변수와 함께 영어학습전략의 이용 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영어 독해 능력은 함께 알아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디지털 교과서 등의 활용으로 온라인 화면 상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중학교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읽기전략 이용과 독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영어읽기전략을 동영상 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쳤을 때 성별과 학습스타일별 영어읽기전략 활용 빈도와 독해력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영어교육 현장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도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온라인 교육 환경에 노출된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쳤을 때, 영어읽기전략 활용 빈도 및 독해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2) 변화가 있다면 성별과 학습스타일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선행 연구 분석

영어학습전략의 중요성

우선, 디지털 영어학습 환경이 영어학습전략 활용 종류와 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시도가 있다(Bae & Kim, 2018a). 전통적으로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 Oxford, 1990)¹를 기초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어학습전략의 종류와 활용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Bae와 Kim(2018b)는 SILL과 다른 설문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디지털 영어학습 환경에서의 디지털 영어학습전략 사용 측정의 범주와 항목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학습전략 설문지는 총 70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고등학생이 영어학습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영어학습에 본인이 사용하는 전략의 정도에 따라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476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설문하고 요인분석한 결과, 63개의 문항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의 경우에는 원래의 SILL에서는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던 정의적 영역이 11개 문항으로 증가하고, 기억전략은 4개의 문항으로 감소하였다. 상위인지전략 8개 문항, 인지전략 7개 문항 외에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기억-인지전략 8개 문항, 상호작용전략 13개 문항, 사회-대체전략 7개 문항, 개인-대체전략 5개 문항으로 기존과는 다른 항목들로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새롭게 도출된 범주와 문항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어학습전략 사용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했다고 해서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을 자주 이용한 것도 아니었고, 디지털 영어학습을 오래 했다고 해서 디지털 영어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Jung & Bae, 2021). 따라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많아진 환경에서도 여전히 영어학습전략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학습전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집중시켜 도움이 된다고 믿어 효과적인 전략 항목들을 목록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Griffiths, 2003), 인지학문적 언어학습법(cognitive academic language learning approach (CALLA); O'Malley & Chamot, 1990)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K. R. Lee, 2007).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교육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서에서의 영어학습전략 현황을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영어학습전략의 명시적 활용을 강조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었다(K. R. Lee et al., 2011; K. R. Lee & Lim, 2021; J.-Y. Park & Kim, 201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교과서의 영어학습전략 현황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10년 전에 비해 역량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했던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 맞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어학습전략의 수와 종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K. R. Lee & Lim, 2021).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학습전략을 알고,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Dignath & Veenman, 2020), 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최근 중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관찰한 연구가 있다(Granstrom et al., 2023). 5개 학교에서 15명의 교사들을 관찰하여 전략을 가르치는지, 가르친다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가르치는지 등을 약 두 달간 관찰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 학습전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교사 중 두 명만 학습전략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었다. 이 두 명의 교사들도 왜 특정 전략이 중요한지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을 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직접 학습전략의 유용성을 강조하기만 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평가해보면서 연습할 기회를 더 줄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상위인지전략을 포함한 전략 행동들은 명시적으로 가르쳤을 때 효과가 크고 교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Anderson, 2002).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교 현장에서도 영어 교과서의 읽기 지문을 활용하여 명시적으로 학습전략을 익히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지식기반 미래 사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아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수행 능력인 역량이 중요해져서(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Organization for Economic

¹ 총 50 개의 문항이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 9 개),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ies: 14 개), 보상전략(compensatory strategies: 6 개),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9 개), 감정전략(affective strategies: 6 개), 사회전략(social strategies: 6 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So, 2006),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전략의 중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3, 2005)가 강조한 것과 같이 미래사회 대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육의 목표를 ‘능력(abilities)’ 향상에서 ‘역량(competencies)’ 함양으로 개선하여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Maeng et al., 2021). 따라서 현장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Maeng et al., 2021), 학습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학습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Kang, 2016; Juyeon Lee, 2016).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기조절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Bai, 2018; Xiao & Yang, 2019; Zimmerman, 1990).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학습전략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학습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인지적 자기조절 전략, 정보를 선택하고 분류하여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인지적 학습 전략,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도움을 취할 수 있는 학습전략 등이 더욱 필요하다(Wang & Bai, 2017; Xiao & Yang, 2019). 따라서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모으고(selecting or reviewing),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며(organizing or arranging),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통합(integrating or linking)할 수 있는 인지적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Fiorella & Mayer, 2016).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영어학습전략 비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성별과 영어학습스타일을 들 수 있다(K. R. Lee, 2008). 성별에 따른 영어학습전략 이용 현황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영어학습전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거나(Oxford, 1993; Sheorey & Mokhtari, 2001) 특정 전략들은 남성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지만(Green & Oxford, 1995; Lan & Oxford, 2003), 성별이 영어학습전략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K. R. Lee & Oxford, 2008). 또한 전략을 텍스트 내용을 추론하는 것과 관련된 분석적 전략(analytical strategies)과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실용적 전략(pragmatic strategies)으로 구분하여 분석적 전략 이용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용적 전략은 여성이 더 선호했다는 결과도 있었다(Gavora et al., 2020). 특히 영어읽기와 관련해서는 상위인지 읽기전략이 남녀 모두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었다(Deliany & Cahyono, 2020). 그리고 영어는 아니지만 최근 시행된 연구 중 동영상상을 활용한 외국어 수업에서의 성별 비교를 한 경우도 있다. 숏폼(shortform) 동영상상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몰입도가 높아지고 불안도가 낮아졌다(J. Park & Yoo, 2021). 이처럼 기 개발된 동영상상을 활용한 연구 외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성별은 타고난 것이지만, 특정 방식에 대한 선호도나 경향을 나타내는 영어학습스타일은 확장이 가능하며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Cohen, 2003; Oxford, 2003),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다른 종류의 학습전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스타일과 전략 이용과의 관계를 알아본 기존의 연구(K. R. Lee, 2008)에서 Oxford(2003)의 영어학습스타일 측정 도구(Styles Analysis Survey; SAS)를 이용하여 5가지 구분의 영어학습스타일²을 측정 후 비교한 결과, 통합적과 분석적 학습스타일 구분이 전반적인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주제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통합적학습자와, 단어와 문장 등 세부적인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분석적학습자로 구분되는 사고전개방식선호도가 다른 것보다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영어학습전략 이용 빈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므로(K. R. Lee, 2008), 이를 영어학습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수업과 함께 연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습전략과 스타일을 성별과 함께 비교한 연구도 있다. 학습전략과 스타일 현황에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지만(Furnham et al., 1999),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시각적 학습자들이 많고, 상기했던

² SAS 는 총 1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감각선호도(시각적, 청각적, 조작적), 대인관계선호도(외향적, 내향적), 가능성에대처방식선호도(즉흥-추상적, 연속-구체적), 과제접근방식선호도(마감지향형, 개방형), 사고전개방식선호도 (통합적, 분석적)로 총 5 가지 영어학습스타일로 구분되어 있다.

사고전개방식선호도에서 남학생은 분석적, 여학생은 통합적 학습자들이 더 많았다는 결과도 있다(Seo, 2010).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 이용과 성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학습스타일인 사고전개방식선호도와 동영상 학습을 함께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어 독해력과 동영상 교재

영어 교육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고른 발달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과의 대면하여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실 상황과 같은 EFL 환경에서는 구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문어적인 의사소통, 특히 읽기 기능이 먼저 발달되어야 할 것이다(Mikulecky & Jeffries, 1986; Rivers, 1981). 전통적 교실에서도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을 중시한 것처럼 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특히 읽기 능력을 우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로 쓰인 다양한 텍스트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읽기 능력이므로 학습자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고(Anderson, 1999; Grabe & Stoller, 2002), 읽기 능력 발달이 선행되어야 학문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McWhorter, 2005). 이처럼 영어학습자에게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Y. J. Kim & Damron, 2015; Shi & Liu, 2006).

특히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영어로 쓰인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Sun & Jung, 2022).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청각 자료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을 위해 영어읽기 지도 시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의 영어 독해 능력 향상 및 영어 학습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 현장에서 동영상의 제공은 효과적인 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Kwak, 2017). 동영상은 음성 자료보다 생생한 언어를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 언어에 대한 호기심 자극, 흥미 유발, 이해 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이다(Allan, 1985; Stempleski & Tomalin, 1990). 이 중 영화를 활용하여 독해전략을 가르쳤던 H. J. Kim(2023)은 영화를 통한 독해전략(예측하기, 중심 내용 요약하기, 중심 주제 표현하기, 비판적 독해)의 활용은 수업 내용 이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수업 활동 참여, 내용에 대한 이해, 수업 집중도에 특히 더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등을 영어교육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Heyoung Kim et al., 2019), 영어를 활용하여 질문을 작성하고 산출된 영어 정보를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챗GPT는 개인에 맞는 내용을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 및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Biswas, 2023), 학습현장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영상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친다면 챗GPT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어 독해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Biswas, 2023; Muslem et al., 2019).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교육(technology-based instruction)은 초기 단순한 시청각 교재에서부터 복잡한 형태의 이러닝 방식을 활용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Halawi et al., 2009).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전략(technology-based digital learning strategies)이 더욱 중요해졌다(Huang et al., 2019).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교재는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Ministry of Education, 2007), 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에 맞추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in et al., 2007).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활용 가능한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교재는, 실질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만 여기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Inan et al., 2010),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 도구로서의 동영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Vidanaralage & Dharmaratne, 2022).

스키마와 일치하는 동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습과 시험을 보는 동안의 얼굴 표정 분석으로 학습자들의 감정 및 기억 정도 등을 비교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동영상을 볼 때의 기억 정도가 더 좋았으며, 학습할 때는 부정적이었으나 시험을 볼 때는 긍정적 감정을 더 느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Vidanaralage & Dharmaratne, 202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학습 도구로 활용할 것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교재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 학습을 강조하면서 논의되고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켜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때문이다(H. J. Kim & Lim, 2013). 특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 교육을 하려는 시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경우도 많다(S. Kim & Kim, 2015; Jaeho Lee & Kim, 2015).

이처럼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영어학습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도 있고(Joo & Bae, 2021; Jung & Bae, 2021), 영어학습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이나 학생이 시범(demonstration)을 보이는 명시적 수업 방식(Anderson, 2002; Granstrom et al., 2023; O'Malley & Chamot, 1990)은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치기 위한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개발한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활용하여 가르친 후 성별과 학습스타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읽기전략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현장 수업에서 직접 적용한 후,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읽기전략과 독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동영상 교재를 이용하여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쳤을 때, 중학생들의 영어읽기전략 활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가?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차이가 있는가?
- 2) 동영상 교재를 이용하여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쳤을 때, 중학생들의 영어 독해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가?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2021년, 우리나라 중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짧은 동영상으로 직접 영어읽기전략을 배우고 활용해 본 후, 영어읽기전략과 독해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를 희망한 영어 교사와 자유학기제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함께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며 디지털 교재 개발과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영어 교사는 약 30년 정도의 영어 교사 경력에 있으며, 다양한 교육 공학을 이용하여 자유학년제 영어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디지털 교재 및 융합 수업 등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서울의 A 중학교에서 시행되었으며, A 중학교에서는 1학년 동안 시행하는 자유학년제 선택 과목으로 디지털 영어 교재를 활용한 읽기전략 수업을 개설할 수 있었다. 수업 계획을 보고 집중적으로 영어읽기전략 동영상을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총 2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2명의 학생이 결석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은 활동이 너무 많아 배제하고 끝까지 성실히 참여한 18명의 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첫 주에 학생의 이름, 반, 성별, 수강 이유, 영어 학습 경험과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배경정보 설문을 하였고, 이 때 SAS의 사고전개방식번호도 측정 항목 20개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남 6명, 여 12명)과 학습스타일별(통합적학습자(G) 10명, 분석적학습자(A) 8명)로 구분하였으며 참여자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tudent Profile in Terms of Gender and Learning Style

	Gender (N = 18)		Learning Style (N = 18)
Male	6	Global	10
Female	12	Analytic	8

연구도구

영어읽기전략 및 지문 선정

Oxford(1990)와 K. R. Lee(2007)가 제시한 영어학습전략 및 읽기전략 목록에서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읽기전략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자유학년제 수업을 진행하는 중학교 영어 교사, 본 논문의 저자인 영어교육 및 학습전략 전문가 3명(국내 대학교수 2명, 미국 대학교수 1명)이 팀으로 어떤 읽기전략이 우선

필요할지를 브레인스토밍하였다. 중학교 영어 교사는 영어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로 상기한 대로 교사 경력이 약 30년으로 다양한 연구 참여 경력이 있고, 영어교육 및 학습전략 전문가 3명 모두 영어교육 박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전후의 영어교육 및 학습전략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들로서, 중학생을 위한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치기 위한 동영상 개발과 활용에 적합한 구성으로 사료된다.

상위인지전략과 인지전략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Anderson, 2002; K. R. Lee, 2007; O'Malley & Chamot, 1990),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전략 중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SQ3R, SOAR, PQRS 등)들 중 중복되는 전략들을 전문가들이 함께 선택하였다. 상위인지전략인 예측하기(Making predictions: M)와 평가하기(Evaluating: E), 인지전략인 분석하기(Analyzing content as reading: A), 요점 파악하기(Navigating: N), 요약하기(Summarizing: S)를 선택하였다. 이 다섯 가지의 읽기전략을 부르기 쉽게 재배치하여 MANSE라고 이름 붙이고, 영어 교사가 개설한 수업과 제목을 일치시켰다.

이 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3종의 읽기 지문을 다시 검토하며 국내 대학 영어교육 전문가 두 명이 각각 10개씩 뽑아 총 20개의 지문을 놓고 함께 논의 후, 총 10개의 지문(총 5차시, 각 차시마다 2개 지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문에 대해 MANSE 전략 5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정보(키워드와 문장 등)를 지문별로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해 문제도 객관식, 단답형, T/F형, 주관식 등 통합적과 분석적 유형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각각 출제하기 적절한 지문인지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문과 지문별 절차적 정보 및 문제들(Appendix A)을 영어 교사와 함께 연구 참여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하였다.

영어읽기전략(MANSE) 측정











본 연구에서 가르쳤던 영어읽기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과업중심 읽기전략 측정도구가 없으므로,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 이용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측정 도구(SILL: Oxford, 1990) 항목 중 MANSE 전략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50개의 SILL 항목들을 검토 후 5개의 MANSE 전략에 해당되는 항목 총 25개(기억전략 5개, 인지전략 8개, 보상전략 5개, 상위인지전략 5개, 감정전략 0개, 사회전략 2개: Appendix B)를 미국 대학의 영어교육 전문가와 함께 추출하여 MANSE 전략(Table 2) 이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각 분류별 평균과 전반적인 전략 이용을 알아보기 위한 총 평균을 1부터 5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사전(alpha = .91)과 사후(alpha = .93) 모두 상당히 높았다. SILL의 항목들은 일반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행동들이 위주이므로,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전략들인 MANSE 전략으로 선정한 결과, 감정전략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고 사회전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 MANSE 전략 교수용 동영상 교재 제작

영어학습전략, 특히 읽기전략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강조하고 있어 미국 영어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전략을 표시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나 학생이 시범을 보이는 교실 환경에서의 영어학습전략 교수용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지문을 대상으로 지문 자체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예측을 하고, 요약을 하는지 등 읽기전략 이용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재는 드물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및 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영어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도 각각의 MANSE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한 후, 현장 교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에 기초하여 귀여운 동물 캐릭터와 연계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전략인 예측하기(Making predictions)는 서서 망을 보는 미어캣의 특징이 훑어보고 예측하는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므로, M으로 축약이 될 수 있는 동물 캐릭터인 미어캣(Meerkat)으로 정하였다. 학생들은 동영상에서 M을 목걸이로 하고 있는 미어캣의 동작을 보며, M이 함께 상징하고 있는 예측하기를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캐릭터(Table 2)를 설정한 후,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부탁하여 필요한 동작(예: 망원경을 들고 멀리 보는 미어캣, 전체 지문을 빠르게 뛰어 다니는 미어캣 등)들을 3-4개씩 그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TABLE 2
MANSE Strategies

Character	Reading Strategy
<p>M</p>  <p>Meerkat</p>	<p>Making predictions (i.e. Making predictions of what the text will be about; before reading)</p> 
<p>A</p>  <p>Ant</p>	<p>Analyzing content as reading (i.e. Analyzing the content of a text; while reading)</p> 
<p>N</p>  <p>Narwhal</p>	<p>Navigating (i.e. Navigating what seemed to be a main idea and key words in each paragraph; while reading)</p> 
<p>S</p>  <p>Snake</p>	<p>Summarizing (Summarizing what I have read into a key sentence using key words; after reading)</p> 
<p>E</p>  <p>Eagle</p>	<p>Evaluating (i.e. ; Evaluating whether I have understood the text correctly or not; after reading)</p> 

캐릭터 선정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 집단은 각 지문을 어떤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해서 어떤 키워드와 요약어 어떻게 도출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각 지문마다 동영상 제작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동영상을 제작해 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동영상 제작시 참여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3-5분³ 정도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하였다. 동영상 제작 전문가가 필요한 음악과 음향을 추가로 제작해서 삽입하고, 성우들을 섭외하여 목소리도 삽입된 동영상 7개(캐릭터 소개 동영상, 5차시 동영상, 마무리 동영상)가 완성되었다(Figure 1).



FIGURE 1

Example of MANSE and its Characters (Newly developed video-bas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aterials)

캐릭터가 대표하는 영어읽기전략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각 지문마다 캐릭터별로 어떤 대사를 할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Table 2). 예를 들면 미어캣이 ‘읽기 전에 뭐가 보이는지 훑어보아야 해!’라는 대사와 함께 텍스트를 제시하고, ‘제목을 제일 먼저 보고...’라는 대사와 함께 제목들을 확대하여 집중하도록 하였다. 소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소제목들도 보는 장면과 대사를 추가하고, 내용 그림을 확대해서 ‘여기 제일 크게 있는 그림처럼 heart map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라는 대사와 함께 읽어가면서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넣었다.

캐릭터간의 유기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이 전환되는 곳에는 서로를 부르며 역할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예측한 내용을 실제로 읽어 보기 위해 개미가 ‘진짜로 heart map에 넣을 내용인지 내가 확인해볼게!’라는 대사와 함께 각 장면에서 어떻게 중요 정보를 분석하면서 읽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어캣! 내가 맞았어! heart map에 들어갈 내용이 단락별로 나와 있었어!’라는 대사와 함께 예측한 내용을 읽고 난 후에 맞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후, 일각고래가 ‘엔트가 모아 놓은 문장들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들을 모으러 다녀올게!’라는 대사와 함께 각 표현들을 뽑아 모아오고, ‘스네이크! 이제 이걸 모아서 요약해봐’로 요약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것을 행동과 함께 보여주었다. 뱀은 모아놓은 중요 표현들을 늘어놓고 ‘이리 가져와봐! 내가 요약을 해볼게’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요약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후, ‘이글!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자’라며 평가를 요청하였다. 독수리가 날면서 다시 ‘나는 이글! 자 그림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볼까?’라는 대사 후 문제를 풀 때 요약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끔씩 ‘스네이크, 네가 도와줘야 해!’라며 요약문을 다시 띄워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는 ‘미어캣! 내가 말한대로 heart map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라며 다시 한번 예측했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5개의 전략 활동을 각 텍스트의 내용과 종류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영어 읽기 능력 평가

13종의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지문에서 폭넓게 선정하여, 참여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새로운 지문이였을 것이지만, 사전 및 사후 평가 지문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교과서 밖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동영상 교재로 수업에 활용할 10개의 읽기 지문과 비슷한 읽기 수준과 종류로 미국 대학 영어교육 전문가가 교육용 읽기 지문을 다수 검토 후, 단어 수, 어휘 수준, 장르(설명문) 등을 고려하여, 사전(Sloths)과 사후(Armadillos) 평가용 지문을 선정하였다.

이를 국내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한 후 각 11개의 독해력 평가 문제(객관식, 단답형, T/F형, 주관식

³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의 길이는 5분 이내가 좋다는 Seilstad(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포함)를 출제하고 현장 교사가 검토하여 학습자들이 이전 수업에서 접하지 않았던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11개의 독해력 평가 문제는 주제나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관련된 통합적 문제들(G문제: 5개)과 단어나 특정 정보 파악 등 세부적 내용 파악을 요하는 분석적 문제들(A문제: 6개)로 구성하였다. 사전과 사후 평가 문제의 타당도와 난이도는 영어 교사와 함께 검토하였다.

데이터 수집 절차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수업 중 첫 주에는 수강생들의 변화가 있어 수강생들이 확정된 2주차에 배경정보와 자기소개서, 사전 영어 독해력 평가, MANSE 전략 측정을 시행하였다.

3주차부터 7주차까지 캐릭터 소개 동영상과 5개의 MANSE 전략 교수 동영상을 보면서 읽기 지문을 하나 연습해 본 후, 또 하나의 읽기 지문은 스스로 MANSE 전략을 활용하며 읽어 본 후 과업중심 자가진단을 통한 성찰을 하였다. 다시 말해, 동영상을 보면서 MANSE 전략을 연습한 후, 새로운 지문을 읽으면서 MANSE 전략을 스스로 활용해보고, 각 전략들이 읽기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직전 읽기 활동과 연계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8주차에는 마무리 동영상을 본 후 사후 영어 독해력 평가와 MANSE 전략 측정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절차

영어 독해력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식, 단답형, T/F형, 주관식 문제를 각 1점으로 총 11점이며 단답형과 주관식의 경우 부분 점수(.5점)를 허용하였고, 현장 교사와 함께 교차 채점을 하였다. 총점 비교 외에도 통합적 문제들(5개)과 분석적 문제들(6개)의 총점을 각각 구하여 비교하였다. 각 점수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 이용되는 통계 프로그램 SPSS(버전 18.0)로 성별과 학습스타일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대응표본 t-test에 상응하는 비모수검정을 시행하였다. 표본수가 적어서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는 Mann-Whitney test,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서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유의확률 .05에서 판단하였다.

MANSE 전략(SILL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분석)은 총 평균과 5개의 분류(M, A, N, S, E) 평균에 대해, 성별과 학습스타일별 비교를 위해 독해력 점수의 경우처럼 Mann-Whitney test와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읽기 활동 직후에는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할 때와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 스스로 이용해 보는 MANSE 전략에 대한 학생들이 스스로 각 전략에 대해 읽기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다음에도 활용해보고 싶은지, 성찰해보는 주관식 평가 내용으로서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였다. 해당 부분의 통계 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동질성 확인: 연구 참여자 사전 독해 능력과 MANSE 전략 이용 현황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가 많지 않고 남녀 학생의 수 차이가 크지만,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한 결과는 관련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의 영어 독해 능력과 MANSE 전략 이용 정도가 얼마나 비슷한 그룹인지, 참여자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비모수 검정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여 성별과 학습스타일별로 비교하였다(Table 3과 Table 4).

우선,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읽기 자료를 보고 독해력을 평가한 결과, 총점외에도 통합적 문제 유형과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도 모두 성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스타일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총점과 통합적 문제 유형 및 분석적 문제 유형 모두에서 통합적학습자들과 분석적학습자들의 독해력 차이는 없었다.

TABLE 3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in Pre-test

			Mean Rank	Sum of Ranks	U	Z	p (exact)
Gender	Total (11)	M (N=6)	8.17 (8.00)	49.00	28.00	-.77	.443 (.494)
		F (N=12)	10.17 (8.25)	122.00			
	Global reading type item (5)	M (N=6)	8.92 (2.67)	53.50	32.50	-.34	.734 (.750)
		F (N=12)	9.79 (2.67)	117.50			
	Analytic reading type item (6)	M (N=6)	8.42 (5.33)	50.50	29.50	-.70	.482 (.553)
		F (N=12)	10.04 (5.58)	120.50			
Learning Style	Total (11)	G(N=10)	9.20 (8.00)	92.00	37.00	-.27	.785 (.829)
		A(N=8)	9.88 (8.38)	79.00			
	Global reading type item (5)	G(N=10)	8.85 (2.50)	88.50	33.50	-.60	.550 (.573)
		A(N=8)	10.31 (2.88)	82.50			
	Analytic reading type item (6)	G(N=10)	9.45 (5.50)	94.50	39.50	-.05	.959 (.965)
		A(N=8)	9.56 (5.50)	76.50			

그러나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활용하여 가르치기 전 참여자들의 MANSE 전략 이용 현황을 비교한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 정도의 빈도를 보이며 성별(남 2.84(.42), 여 3.41(.64))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U = 14.50, Z = -2.02, p = .044$), 학습스타일별(통합적 3.30(.59), 분석적 3.13(.69))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동영상 교재로 영어읽기전략을 가르치기 전 측정된 MANSE 전략은 통합적학습자와 분석적학습자들 간 사용 빈도가 유사하였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M 전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남 3.13(.37), 여 3.92(.64), $U = 8.50, Z = -2.60, p = .009$), N 전략과 E 전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유의미한 차이(marginally significant: $p = .051, .059$)가 있었다. 따라서 MANSE 전략 총 평균에서 보였던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는 주로 M 전략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였다. 다시 말해, 글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거나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대충 훑어 본 뒤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읽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배우기 전부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사후에 MANSE 전략 총 평균 외에도 M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요점을 파악하고 키워드를 찾아보는 행동인 N 전략과, 이해한 내용으로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E 전략도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약간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자주 전략을 이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만(Oxford, 1993; Sheorey & Mokhtari, 2001), 성별에 따라 읽기전략의 세부 종류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TABLE 4
Frequency of MANSE Strategy Use in Pre-test

			Mean Rank	Sum of Ranks	U	Z	p (exact)
Gender	Total	M (N=6)	5.92 (2.84)	35.50	14.50	-2.02	.044* (.041*)
		F (N=12)	11.29 (3.41)	135.50			
	M Strategy	M (N=6)	4.92 (3.13)	29.50	8.50	-2.60	.009** (.007**)
		F (N=12)	11.79 (3.92)	141.50			
	A Strategy	M (N=6)	7.33 (3.13)	44.00	23.00	-1.23	.219 (.250)
		F (N=12)	10.58 (3.50)	127.00			
	N Strategy	M (N=6)	6.08 (2.53)	36.50	15.50	-1.95	.051 [†] (.053 [†])
		F (N=12)	11.21 (3.22)	134.50			
	S Strategy	M (N=6)	8.75 (2.37)	52.50	31.50	-.42	.673 (.682)
		F (N=12)	9.88 (2.70)	118.50			
	E Strategy	M (N=6)	6.17 (3.03)	37.00	16.00	-1.89	.059 [†] (.067 [†])
		F (N=12)	11.17 (3.72)	134.00			
Learning Style	Total	G(N=10)	10.40 (3.30)	104.00	31.00	-.80	.423 (.460)
		A(N=8)	8.38 (3.13)	67.00			
	M Strategy	G(N=10)	9.65 (3.70)	96.50	38.50	-.14	.893 (.897)
		A(N=8)	9.31 (3.60)	74.50			

Learning Style	A Strategy	G(N=10)	10.25 (3.42)	102.50	32.50	-.67	.501 (.515)
		A(N=8)	8.56 (3.33)	68.50			
	N Strategy	G(N=10)	9.95 (3.06)	99.50	35.50	-.41	.685 (.696)
		A(N=8)	8.94 (2.90)	71.50			
	S Strategy	G(N=10)	10.45 (2.70)	104.50	30.50	-.85	.398 (.408)
		A(N=8)	8.31 (3.50)	66.50			
	E Strategy	G(N=10)	10.80 (3.60)	108.00	27.00	-1.16	.245 (.274)
		A(N=8)	7.88 (3.35)	63.00			

* $p < .05$, ** $p < .01$, *** $p < .001$, † $p < .06$ (marginally significant)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MANSE 전략 이용 변화 비교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학습자들에게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교과서 내용을 이용하여 가르쳤을 때, 상기한대로 유의미한 이용 빈도 차이를 보였던 MANSE 전략 이용 현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선 알아보았다. 동영상 교재가 영어읽기전략인 MANSE 전략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MANSE 전략이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로 사후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본 후에, 전략 이용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영어 독해력에서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다.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가르치기 전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MANSE 전략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지만, 7주 간의 학습 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졌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총 평균과 M 전략뿐만이 아니라, 근소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N 전략과 E 전략도 모두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이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MANSE 전략이라는 특정한 읽기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연습해보는 활동을 통해, 배우기 이전의 전략 이용 정도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남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기 때문인지, 여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적게 사용하게 된 것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대응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참여자 수가 적어서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5).

우선,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구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MANSE 전략의 이용 빈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총 평균 외에도 M, A, N, S, E 전략들 모두 동영상 교재로 가르친 후에 유의미하게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M 전략에서 보통 수준의 이용 정도가(3.66) 자주(4.02)에 해당되는 이용 빈도로 향상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모든 참여자들이 영어읽기전략을 명시적으로 배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략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의미하게 그 이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측하는 행동에 해당되는 상위인지전략이 독해력 향상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Anderson, 2002; K. R. Lee, 2007; K. R. Lee & Oxford, 2008)와 일치하였다.

성별 MANSE 전략 이용 향상도를 비교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전략 이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항목이 많았다. 남학생들은 총 평균, M 전략, N 전략, E 전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던 반면, 여학생들은 총 평균, A 전략과 S 전략에서 학습 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즉, 영어읽기전략을 동영상 교재로 배운 후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MANSE 전략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많이 이용하게 되었으나, 각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사전에 더 자주 이용했었던 M 전략, N 전략, E 전략은 남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자주 이용하게 변화되었고, 이용 빈도가 비슷했던 A 전략과 E 전략은 여학생들이 배우고 난 후에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똑같은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배우더라도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영어 읽기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전략 행동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독해력이 낮은 학생들은 성별에 따른 읽기전략 이용 차이가 있었지만 독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별 차이가 없었던 Rianto와 Ehmke(2021)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학생들의 독해력이 낮은 그룹인지 높은 그룹인지의 비교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독해력에 대한 그룹별 비교와 함께 사전에 유의미한 MANSE 전략 이용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독해력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TABLE 5
Frequency of Pre- and Post-MANSE Strategy Use by Gender

		Pre		Post		Z	p
		M	SD	M	SD		
Total	Total (N=18)	3.22	.62	3.67	.70	2.99	.003**
	M (N=6)	2.84	.63	3.45	.54	2.21	.027*
	F (N=12)	3.41	.63	3.79	.74	2.20	.028*
M Strategy	Total (N=18)	3.66	.67	4.02	.58	2.23	.025*
	M (N=6)	3.13	.37	3.83	.63	2.21	.027*
	F (N=12)	3.92	.64	4.12	.56	.98	.326
A Strategy	Total (N=18)	3.38	.59	3.73	.69	2.36	.018*
	M (N=6)	3.13	.30	3.47	.63	.95	.340
	F (N=12)	3.50	.67	3.87	.70	2.06	.039*
N Strategy	Total (N=18)	2.99	.72	3.51	.90	2.60	.009**
	M (N=6)	2.53	.52	3.40	.96	2.21	.027*
	F (N=12)	3.22	.72	3.57	.91	1.59	.113
S Strategy	Total (N=18)	2.59	1.00	3.26	1.10	2.36	.018*
	M (N=6)	2.37	.71	2.87	.80	.84	.400
	F (N=12)	2.70	1.13	3.45	1.20	2.13	.033*
E Strategy	Total (N=18)	3.49	.72	3.84	.71	2.40	.016*
	M (N=6)	3.03	.54	3.67	.50	2.22	.027*
	F (N=12)	3.72	.70	3.93	.80	1.44	.150

* $p < .05$, ** $p < .01$, *** $p < .001$

다시 말해, 남학생은 MANSE 전략을 배운 후에 예측하는 행동(M)과 요점을 파악하고(N) 이해를 점검해보는(E) 행동들을 유의미하게 많이 하게 되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들이 자주 하게 된 세 가지 전략(M, N, E)은 배우기 전에도 자주 이용했고 추가적으로 분석(A) 및 요약(S)하는 행동도 모두 유의미하게 더 자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영상으로 읽기전략을 배우며 영어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여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여성이 영어학습전략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Green & Oxford, 1995; Lan & Oxford, 2003; Oxford, 1993; Sheorey & Mokhtari, 2001)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읽기 전략을 동영상으로 배우게 되었을 때 여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과업중심 자가진단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의미하게 향상된 부분에서도, M 전략 이용 정도만 자주(전체 학생 4.02, 여학생 4.12)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외 모든 전략에서는 중간 정도의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어, 참여 중학생들의 전략 이용에 대해 인터뷰 등을 통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수가 적어서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남학생들의 요약(S)하는 행동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도 않았고 사후에 유일하게 여전히 보통 이하의 빈도(2.87)를 보이고 있어, 참여 남학생들이 요약하는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Seo(2010)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들은 분석적학습자(통합적 남학생 2명, 분석적 남학생 4명)가 많고 여학생들(통합적 여학생 8명, 분석적 여학생 4명)은 통합적학습자가 많았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른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학습스타일별 MANSE 전략 이용 현황은 사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다시 말해, 통합적학습자들과 분석적학습자들은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배우기 전과 후 모두 서로와 비슷한 정도로 MANSE 전략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스타일별 MANSE 전략 이용 향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통합적학습자들은 총 평균, M 전략, A 전략, S 전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분석적학습자들은 유일하게 총평균에서의 유의미한 향상이 없었으며, 통합적학습자들과 반대로 N 전략과 E 전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동영상을 활용하여 읽기전략을 배우며 교과서 지문을 이용한 읽기 활동을 했을 때, 분석적학습자들보다는 통합적학습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통합적학습자들이 MANSE 전략을 동영상을 통해 명시적으로 배운 후, 배우기 전보다 전체적인 총 평균과 세 가지 전략(M, A, S)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지만, 총 평균 향상이 없고 두 가지 전략(N, E)에서만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던 분석적학습자들과의 사후 시점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그룹에서의 유의미한 항목 간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아 전체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기했던 대로 참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읽기전략 활용 빈도가 중간

정도로 높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TABLE 6
Frequency of Pre- and Post-MANSE Strategy Use by Learning Style

		Pre		Post		Z	p
		M	SD	M	SD		
Total	Total (N=18)	3.22	.62	3.67	.70	2.99	.003**
	M (N=6)	3.30	.59	3.79	.67	2.60	.009**
	F (N=12)	3.13	.69	3.53	.76	1.68	.093
M Strategy	Total (N=18)	3.66	.67	4.02	.58	2.23	.025*
	M (N=6)	3.70	.67	4.12	.50	2.20	.028*
	F (N=12)	3.60	.70	3.90	.68	1.12	.261
A Strategy	Total (N=18)	3.38	.59	3.73	.69	2.36	.018*
	M (N=6)	3.42	.62	3.98	.58	2.57	.010*
	F (N=12)	3.33	.59	3.43	.71	.50	.620
N Strategy	Total (N=18)	2.99	.72	3.51	.90	2.60	.009**
	M (N=6)	3.06	.67	3.56	.89	1.79	.074
	F (N=12)	2.90	.82	3.45	.98	2.41	.016*
S Strategy	Total (N=18)	2.59	1.00	3.26	1.10	2.36	.018*
	M (N=6)	2.70	1.04	3.50	1.04	2.51	.012*
	F (N=12)	2.45	1.00	2.95	1.16	.77	.441
E Strategy	Total (N=18)	3.49	.72	3.84	.71	2.40	.016*
	M (N=6)	3.60	.51	3.80	.76	1.19	.232
	F (N=12)	3.35	.94	3.90	.69	2.39	.017*

* $p < .05$, ** $p < .01$, *** $p < .001$

다시 말해, 통합적학습자들은 동영상으로 읽기전략을 배우기 전보다 MANSE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예측하고(M), 분석하며(A), 요약하는(S)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으며, 분석적학습자들은 요점을 파악하고(N) 평가하는(E) 행동을 더 자주하게 되었다. 이는 영어학습전략을 동영상으로 배우기 전에는 차이가 없었던 전략 이용 현황이 달라진 것이라 왜 통합적학습자들과 분석적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행동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된 것인지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통합적학습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개념을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고 분석적학습자들은 일련의 사실들을 엮어서 내용 파악을 하려는 성향이 있어, 통합적학습자들이 본인들의 성향과 잘 맞는 M 전략, A 전략, S 전략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분석적학습자들의 성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N 전략과 E 전략을 자주 활용하게 된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주관적 과업중심 자가진단에 따르면, 읽기전략을 동영상 교재로 가르쳤을 때, 통합적학습자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예측하고(M), 분석하고(A), 요약하는(S) 행동을 보여줬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원래 하던 예측하기보다도 동영상에서 미어캐이 하는 행동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다(4.12 (.50))는 성찰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A) 요약하는(S) 행동에 익숙한 분석적학습자들은 평가하는(E) 행동들을 배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영상으로 읽기전략을 배우기 전에는 통합적 및 분석적학습자 모두 M>E>A>N>S의 순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정도의 전략 이용 정도를 보였다면, 읽기전략을 학습하고 스스로 활용해 본 후에는 분석적학습자는 M 전략과 E 전략이 자주에 가까운(둘 다 3.90) 정도로 바뀌고 평소에 익숙한 요약하는(A) 행동보다 요점파악(N)하는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 것이 흥미로웠다(M>E>N>A>S). 통합적학습자는 N 전략과 S 전략을 제외하고 분석적학습자들보다는 자주(4.00)하는 행동으로 바뀌었고, A 전략과 E 전략의 순서가 바뀌어 통합적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분석하는(A) 행동들을 더 자주(3.98)하게 된 것이 달랐다(M > A > E > N > S). 다시 말해, 동영상으로 읽기전략을 배우기 전과 비교하여 통합적학습자는 분석적학습자들이 선호하는 A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2위), 분석적학습자는 원래 선호하던 A 전략을 다른 전략보다 덜 자주사용하게 되었다(4위)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각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매치 및 미스매치가 읽기 능력 향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요약하면, 동영상을 활용한 영어읽기전략인 MANSE 전략을 배우며 영어로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전략 이용 빈도가 증가한 항목이 더 많았으며, 분석적학습자들보다 통합적학습자들에게 전략 이용 빈도가 증가한 항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아, 본 논문에서 개발한 동영상 읽기전략은 여학생들과 통합적학습자들에게 더 적절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여학생의 대부분이 통합적 유형이라는 사실이 통합적학습자에게 더 적절한 방식으로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일 수도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성별과 학습스타일이 모두 반영된 집단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므로(통합적 여학생 8명, 분석적 여학생 4명, 통합적 남학생 2명, 분석적 남학생 4명),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세부적인 집단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 활용과 독해력: 연구 참여자 사후 독해력 비교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로 배우기 전에 비해 MANSE 전략은, 성별(Table 5) 및 학습스타일별(Table 6) 향상 정도에 차이가 생겼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제로 독해력도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하였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p=.175$), 통합적 문제 유형($2.67 \rightarrow 4.33, p=.000$)과 분석적 문제 유형($5.50 \rightarrow 4.56, p=.024$)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유의미한 변화는 흥미롭게도,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는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지만,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는 유의미하게 하락하여 전체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읽기전략을 동영상으로 배우면서 읽기 활동을 한 결과, 통합적 문제 유형을 위한 독해 능력에는 MANSE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분석적 문제 유형을 위한 독해 능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 그룹과의 비교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학습스타일의 차이와 문제 유형의 차이를 교차 비교하여 나타난 해당 결과는, 독해를 지도할 때 분석적 문제를 통합적 문제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S.-Y. Kim(2016)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유의미한 하락의 원인은 분석적학습자들의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의 유의미한 점수 하락($5.50 \rightarrow 3.38, p=.017$)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적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문제 유형에서 오히려 하락하고, 분석적 문제 유형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통합적학습자들이 점수 유지를 하면서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자들이 과업중심 자가진단 과업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석적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스스로 일정 시간 이상을 실제로 분석에 임해야 하는데, 3-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에 실제 교과서 지문에서 어떻게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통합적 문제 유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주제나 전체적 내용을 예측하고 파악하는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는, 동영상의 캐릭터와 함께 빠르게 주어진 지문을 스캔하여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하는 분석적 문제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7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in Pre-test and Post-test

			Pre		Post		Z	p
			M	SD	M	SD		
Total	Total (11)	Total (N=18)	8.17	1.69	8.89	1.95	1.36	.175
	Global reading type item (5)	Total (N=18)	2.67	1.19	4.33	.54	3.64	.000***
	Analytic reading type item (6)	Total (N=18)	5.50	.71	4.56	1.54	2.26	.024*
Gender	Total (11)	M (N=6)	8.00	1.10	7.92	1.43	.14	.892
		F (N=12)	8.25	1.96	9.38	2.04	1.74	.082
	Global reading type item (5)	M (N=6)	2.67	.82	3.92	.20	2.06	.039*
		F (N=12)	2.67	1.37	4.54	.54	3.07	.002**
	Analytic reading type item (6)	M (N=6)	5.33	.82	4.00	1.41	1.81	.071
		F (N=12)	5.58	.67	4.83	1.59	1.48	.140

	Total (11)	G(N=10)	8.00	1.89	10.00	1.15	2.81	.005**
		A(N=8)	8.38	1.51	7.50	1.89	1.78	.074
Learning Style	Global reading type item (5)	G(N=10)	2.50	1.27	4.50	.53	2.82	.005**
		A(N=8)	2.88	1.13	4.13	.52	2.38	.017*
	Analytic reading type item (6)	G(N=10)	5.50	.71	5.50	.71	.000	1.000
		A(N=8)	5.50	.76	3.38	1.51	2.39	.017*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학생들은 분석적 문제 유형 점수가 오히려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과는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하락 양상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 양상으로 인해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지만, 총점에서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스타일별 향상도 비교 결과에서도 성별 결과처럼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성별 결과와 달랐던 것은, 통합적학습자는 통합적 문제 유형과 더불어 총점에서도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분석적학습자는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는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고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는 유의미하게 하락하여 총점에서의 향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Table 6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석적학습자의 요점 파악하기(N)와 평가하기(E)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읽기전략 동영상으로 학습한 것이 통합적학습자에게는 선호하는 문제 유형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분석적학습자에게는 선호하는 문제 유형에서는 오히려 못하게 된 결과로서,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요약하면, Table 8에 정리된 것처럼 MANSE 전략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그리고 통합적과 분석적학습자 모두에게 통합적 문제 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왜 MANSE 전략이 통합적 문제 유형 향상에 더욱 효과적인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비문학적 설명문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 통합적학습자가 더 많은 비중인 참여학생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들(M, N, E)과 여학생들(A, S), 통합적학습자들(M, A, S)과 분석적학습자들(N, E), 각각이 서로 다른 전략 항목이 향상된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TABLE 8

Summary of Improvement of Reading Strategy Use and Reading Comprehension Performance

	Reading Strategy Use						Reading Comprehension Performance		
	Total	M	A	N	S	E	Total	Global	Analytic
Total (N=18)	↑	↑	↑	↑	↑	↑	↑	↑	↓
M (N=6)	↑	↑		↑		↑		↑	
F (N=12)	↑		↑		↑			↑	
G (N=10)	↑	↑	↑		↑		↑	↑	
A (N=8)				↑		↑		↑	↓

독해력에서는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만 남녀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Table 7), 향상된 사후의 점수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남 3.92 < 여 4.54, $U = 11.00$, $Z = -2.42$, $p = .015$). 다시 말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각 읽기전략 동영상으로 읽기 활동을 한 후, 사전에 비해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므로, 여학생의 통합적 문제 유형 풀이 능력에 MANSE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사전에는 차이가 없었던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 사후에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남녀 학생 모두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상위인지 읽기전략을 자주 사용했다는 Deliany와 Cahyono(2020)의 결과처럼, 특히 상위인지 읽기전략과 관련이 있는 통합적 문제 유형에서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분석적학습자들이 더 많았던 남학생 그룹에서 점수 향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향후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스타일과 성별의 비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유발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통합적학습자들이 분석적학습자들보다 총점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독해력을 보였고($G 10.00 > A 7.50$, $U = 11.00$, $Z = 2.61$, $p = .009$), 오히려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독해력을 보였던 것($G 5.50 > A 3.38$, $U = 8.50$, $Z = -2.91$, $p = .004$)에 주목하여 통합적학습자들이 많은 학습자 그룹에게는 MANSE 전략을 가르치는 동영상을

현재처럼 활용하여도 될 것이고, 분석적학습자들이 많은 학습자 그룹에게는 다른 형태의 읽기전략 교재를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분석적 문제 유형 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읽기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MANSE 전략과 비교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학습자들의 과업중심 자가진단에서, 스스로 MANSE 전략 중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전략들을 골라서 읽기 활동을 한 후, 분석(A)이나 요점 파악(N)과 같은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분석적 문제 유형에 도움이 되는 읽기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MANSE 전략과 비슷한 형태의 동영상 읽기전략 자료를 개발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유형별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전략 동영상 교수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분석적학습자들이 전략 이용 빈도에서 향상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를 생각해보면, 분석적학습자들에게는(특히 분석적 남학생들) MANSE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인터뷰를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교사의 관찰과 수업마다 실시했던 전략에 대한 과업중심 자가진단에 의한 성찰에 따르면 분석적학습자들은 보다 더 자세한 시범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 분석적학습자들이 동영상 제시 방법 중 어떤 면을 선호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제시되기를 바라는지를 더 면밀히 알아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너무 짧게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닌지 동영상의 길이와 교육 효과를 함께 알아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해 달라진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짧은 동영상 교재를 만들어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로 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읽기 활동이 필수적인 환경에서는 영어 독해 능력을 우선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MANSE 전략이라는 영어읽기전략을 선정하고, 캐릭터화하여,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였다. 8주 동안 진행되는 자유학년제 수업에서 직접 활용하여 읽기 수업을 진행한 후,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로 영어읽기전략 이용 현황과 읽기 점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총 18명의 학생들의 사전 독해 능력과 사전 MANSE 전략 이용 빈도를 측정한 후, 7주 동안 중학교 교과서에서 선정한 10개의 지문을 이용하여 영어읽기전략 동영상을 활용한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전과 비슷한 주제와 형태의 사후 독해 능력과 사후 MANSE 전략 이용 빈도를 측정하여, 성별과 학습스타일별 전략 이용 빈도와 읽기 점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8에 요약한 것처럼 MANSE 전략 항목들에서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타났으며, 읽기 점수는 일반적으로 학습 후에는 향상하였던 기존 결과와는 달리 분석적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문제 유형인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는 오히려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 문제 유형에 더 적합한 읽기전략, 분석적 문제 유형에 더 적합한 읽기전략을 보다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습자들의 학습스타일에 따라서 동영상으로 제시할 때의 방식 등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분석적학습자가 선호하는 분석적 문제 유형에서 하락한 이유가, 읽기전략을 가르치기 위한 동영상을 활용했을 때 분석적학습자들의 성향과 반대인 통합적 유형에 적합한 행동들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기존에 하던 행동들이 억제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통합적학습자의 비중이 더 큰 것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다각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이를 통한 일반화가 어렵고 결과 해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 새로운 세대인 중학생 영어학습자들이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세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 읽기를 통해 정보 습득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읽기 및 학습전략 관련 연구도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어떤 읽기전략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어떻게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이용 빈도와 독해력을 함께 향상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 비교 외에도 영어읽기전략 및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들은 본 연구의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활용할 때, 한 번은 어떤 것인지 원래의 속도대로 보여주고,

실제 지문을 읽을 때 분석적 행동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이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재미 캐릭터가 나와서 각 지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는(A) 부분은 재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멈춘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동영상 중간에 멈춰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기했던 대로 본 논문은 참여 학생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 지문 내용을 이용하여 영어읽기전략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별 및 학습스타일별로 차이가 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관련 후속 연구와 현장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llan, M. (1985). *Teaching English with video*. Longman.
- Anderson, N. (1999). *Exploring second language reading: Issues and strategies*. Heinle and Heinle.
- Anderson, N. (2002). *The role of metacognition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RIC Digest.
- Bae, Jiyoung, & Kim, Gyoo-Mi. (2018a). A stud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e of digital English learning environments: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 betwee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learner variable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1*(1), 19-43.
- Bae, Jiyoung, & Kim, Gyoo-Mi. (2018b). High school students'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affective domains: Focusing on digital English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2*(6), 447-461.
- Bai, B. (2018). Understanding primary school students' use of self-regulated writing strategies through think-aloud protocols. *System, 78*, 15-26.
- Bandura, A. (1992). Exercise of personal agency through the self-efficacy mechanism.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p. 3-38). Hemisphere Publishing Corp.
- Biswas, S. (2023). Role of Chat GPT in education. *Journal of ENT Surgery Research, 1*(1), 1-3.
- Candy, P.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Jossey-Bass Publishers.
- Choi, Soo Young, & Kim, In Su. (2003). An effective use of English CD-ROM titles develop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6*(2), 195-219.
- Cohen, A. D. (2003). *Strategy training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University of Minnesota.
- Deliany, Z., & Cahyono, B. Y. (2020).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awareness and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use of EFL university students across gender.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Education, 7*(2), 421-437.
- Dignath, C., & Veenman, M. V. J. (2020). The role of direct strategy instruction and indirect activ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Evidence from classroom observation studi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3*(2), 489-533.
- Fiorella, L., & Mayer, R. E. (2016). Eight ways to promote generativ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4), 717-741.
- Furnham, A., Jackson, C. J., & Miller, T. (1999). Personality, learning style and work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7*(6), 1113-1122.
- Gavora, P., Vaculiková, J., Kalenda, J., Kálmán, O., Gombos, P., Świgost, M., & Bontová, A. (2020). Comparing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from Poland, Hungary, 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4*(7), 896-910. <https://doi.org/10.1080/0309877X.2019.1614545>
- Grabe, W., & Stoller, F.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Pearson Education.
- Granstrom, M., Kikas, E., & Eisenschmidt, E. (2023). Classroom observations: How do teachers teach learning strategies? *Frontiers in Education, 8*. <https://doaj.org/article/b22c942e19774d3180588e592b5387f2>
- Green, J. M., & Oxford, R. L. (1995). A closer look at learning strategies, L2 proficiency, and gender. *TESOL Quarterly, 29*(2), 261-297.
- Griffiths, C. (2003). *Language learning strategy use and profici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reported language learning strategy (LLS) use by Speakers of Other Languages (SOL) and proficiency with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learning sit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uckland.
- Halawi, L. A., McCarthy, R. V., & Pires, S. (2009). An evaluation of E-learning on the basis of Bloom's Taxonom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4*(6), 374-380.
- Huang, R., Spector, J. M., & Yang, J. (2019). *Educational technology: A primer for the 21st century*. Springer.
- Inan, F. A., Lowther, D. L., Ross, S. M., & Strahl, D. (2010). Pattern of classroom activities during students' use of computers: Relations between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computer applicatio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3), 540-546.
- Jin, Kyung-Ae, Chang, Kyungsuk, Pae, Jue-Kyoung, Jung, Kyutae, & Lee, Yong-Hun. (2007). *English e-book development as learning materials* (Rep. No. CRI 2007-1-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oo, Hamin, & Bae, Jiyoung. (2021). A study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in a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Kore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1105-1127.
- Jung, Dae-Yeon, & Bae, Jiyoung. (2021).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use of digital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learner variables. *English Language Teaching, 33*(1), 87-109.

- Kang, Jung-Jin. (2016). 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ies-bas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with a transforma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4), 93-117.
- Kim, Heyoung, Shin, Dongkwang, Yang, Hye Jin, & Lee, Jang Ho. (2019). A study of AI chatbot as an assistant tool for school English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 89-110.
- Kim, HyeJeong. (2023). A study on reading strategies for English reading class using movies: Focusing on the movie Zootopia.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24(1), 1-13.
- Kim, HyeJeong, & Lim, Heui Seok. (2013). Exploring on digital textbooks for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2), 33-42.
- Kim, Hyun-Jeong, & Kim, Eun-Jeong. (2016).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English digital textbook. *Secondary English Education*, 9(2), 29-58.
- Kim, Sehyeon, & Kim, Heyoung. (2015). Designing scaffolding in a digital English textbook for high school low achievers: A case study.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8(1), 33-58.
- Kim, Soo-Yoon. (2016). *The effects of different instruction orders on English learners' reading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Kim, Young Joo, & Damron, J. (2015). Foreign language reading anxiety: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National Council of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17, 23-55.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Follett Publishing Company.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Discussions with the public on restructur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o develop key competences*. <https://www.youtube.com/watch?v=vW xHDNBAOS0>
- Kwak, Myunsun. (2017). The effects of using on-line video contents on improving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the interests in English Learning.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33(3), 319-338.
- Lan, R., & Oxford, R. L. (2003). Language learning strategy profil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aiwa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41(4), 339-379.
- Lee, Jaeho, & Kim, Jaewoong. (2015).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learning by using digital textbooks: Focused on 4th graders. *Journal of Creative Information Culture*, 1(2), 93-100.
- Lee, Juyeon. (2016). Directions for the English education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oceedings of KAPEE Summer Workshop*, 9-16.
- Lee, Kyoung Rang. (2007). *Strategy awareness-raising for success: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in the EFL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Lee, Kyoung Rang. (2008). Myths and realities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tyl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8(4), 501-522.
- Lee, Kyoung Rang, Kim, Soo-Yoon, Kim, Seul-Gi, & Lee, Yun-Jung. (2011).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y instruction in Korean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177-201.
- Lee, Kyoung Rang, & Lim, Ju Eun. (2021). A comparison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etween 2009 and 2015 Revised Curricul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581-598.
- Lee, Kyoung Rang, & Oxford, R. L. (2008). Triangulating think-alouds and questionnaires in reading strategy assessment: An exploratory study. *English Teaching*, 62(3), 331-356.
- Maeng, Unkyoung, Ko, Mi Ra, Pae, Jue-Kyoung, Ahn, Kyung Ja, Lee, Sangmin, Chang, Seung Ah, Jeong, Da-Un, Joo, Hyung Mi, & Hwang, Jong-Bai. (2021). *Policy suggestions for restructur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o develop core competences (2021-Commissioned-13)*. Ministry of Education & Ajou University.
- McWhorter, K. T. (2005). *Active reading skills*. Longman.
- Mikulecky, B. S., & Jeffries, L. (1986). *Reading power*. Addison-Wesley.
- Ministry of Education. (2020). *Casebook on distance learning* (June 24, 2020).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1a). *The results of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2020 and response strategies for supporting learning* (June, 2, 2021).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1b). *Announcement of major changes i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November 24, 2021).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Plans for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textbook*. https://www.serii.re.kr/fus/file/download0010f.do?attach_file_id=5491&file_seq=1&alias_name=20211227101310415_1
- Muslem, A., Zulfikar, T., Ibrahim, I. H., Symaun, A., Saiful, & Usman, B. (2019). The impact of immersive strategy with English video clips on EFL students' speaking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at senior high school.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19(4), 90-103.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Background Paper*.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41529556.pdf>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https://www.oecd.org/pisa/35070367.pdf>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Heinle & Heinle.
- Oxford, R. L. (1993). Instructional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second/foreign language (L2)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Applied Language Learning, 4(1 & 2), 65-94.

- Oxford, R. L. (2003).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An overview. *Proceedings of GALA*, 1-25.
- Oxford, R. L. (2018).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A. Burns & J. C. Richards (Eds.), *The Cambridge guide to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81-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Ji-Yoon, & Kim, YoungMin. (2019). An analysis of the learning strategies in 3rd and 4th grade elementary English textbooks of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Education*, 39(4), 21-39.
- Park, Jiyeon, & Yoo, Hoonsik. (2021). The effects of learning Korean through shortform video on the learning-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7), 617-632.
- Rianto, A., & Ehmke, T. (2021).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reading strategies, reading skills, and English proficiency of EFL university students. *Cogent Education*, 8(1), <https://doi.org/10.1080/2331186X.2021.1993531>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ilstad, B. (2012). Using tailor-made YouTube videos as a preteaching strategy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Morocco: Towards a hybrid language learning course.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12(4), 31-47.
- Seo, Sang-hui.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trategi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Shorey, R., & Mokhtari, K. (2001). Differences in the metacognitive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among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System*, 29(4), 431-449.
- Shi, Y. Z., & Liu, Z. Q. (2006). Foreign language reading anxiety and its relationship to English achievement and gender. *Journal of PLA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29, 59-65.
- So, Kyung Hee. (2006). Investigation on new approaches to curriculum design f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3), 39-59.
- Stempleski, S., & Tomalin, B. (1990). *Video in action: Recipes for using video in language teaching*. Prentice Hall.
- Sun, Eui In, & Jung, YeonJoo. (2022). An analysis of the writing activities i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textbooks: Genre-based approach to writing instruction.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6(4), 135-154.
- Vidanaralage, A. J., & Dharmaratne, A. T. (2022). Schema and emotion in memory retrieval following video-based learn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tudy.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8(5), 109-132.
- Wang, C., & Bai, B. (2017). Validating the instruments to measure ESL/EFL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ESOL Quarterly*, 51(4), 931-947.
- Woodrow, L. (2005). The challenge of measuri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Foreign Language Annals*, 38(1), 90-98.
- Xiao, Y., & Yang, M. (2019). Formative assess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How formative assessment supports students' self-regulat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System*, 81, 39-49.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 3-17.

Appendix B

MANSE Strategies from SILL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1. 나와 전혀 또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2. 나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3. 나와 다소 일치한다.
4. 나와 대체로 일치한다.
5. 나와 항상 또는 거의 언제나 일치한다.

전략 항목	표시하시오
1. 영어로 새로 배운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	1 2 3 4 5
2.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단어들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	1 2 3 4 5
4. 새로운 영어 단어가 쓰일 만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단어를 암기한다.	1 2 3 4 5
6. 플래시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	1 2 3 4 5
8. 영어 시간에 배운 것을 자주 복습한다.	1 2 3 4 5
10. 새로운 영어 단어를 서너 번 말하거나 써본다.	1 2 3 4 5
13. 아는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본다.	1 2 3 4 5
17. 메모, 메시지, 편지, 보고서 등을 영어로 쓴다.	1 2 3 4 5
18.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대충 훑어 본 뒤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읽는다.	1 2 3 4 5
19. 새로운 영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한국어에 있는지 찾아 본다.	1 2 3 4 5
20. 영어의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1. 모르는 영어 단어를 내가 아는 부분들로 쪼개어 단어 전체의 의미를 알아낸다.	1 2 3 4 5
23. 영어로 듣거나 읽은 정보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한다.	1 2 3 4 5
24. 잘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추측을 해 본다.	1 2 3 4 5
26. 영어로 딱 맞는 단어를 모를 때는 내 나름대로 단어를 새로 만들어 낸다.	1 2 3 4 5
27. 영어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사전에서 찾지는 않는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해 본다.	1 2 3 4 5
29.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나 구를 대신 사용한다.	1 2 3 4 5
30.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3.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6. 가능한 한 영어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1 2 3 4 5
37.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38. 영어를 공부할 때 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생각한다.	1 2 3 4 5
45.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천천히 또는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1 2 3 4 5
46. 영어로 말할 때 틀린 것을 고쳐달라고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요청한다.	1 2 3 4 5